



## 데이터로 읽는 보건관리자

### 안전관리자 주요업무

위험성평가, 위험기계·기구, 안전교육  
순회점검에 대한 지도·조언 및 보좌

산재 발생 원인 조사·분석,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 
산재 통계 유지·관리·분석 등에 대한 지도·조언 및 보좌

### 보건관리자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?

보건관리자는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람으로서 안전관리자와의 선임기준이 다르며 업무도 차이가 있다.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는 서로의 직책을 겸직할 수 없지만, '상시근로자 300인 미만' 사업장은 업무 수행이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다. 까닭에 보건관리자는 다른 업무로서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임하기도 한다.

### 보건관리자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을까?

보건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격증이 있어야 한다.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산업보건지도사, 의사, 간호사, 산업위생기사 및 대기환경기사 그리고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위생 분야 학위 취득자 등으로 보건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. 2021년 고용노동부에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 자격을 가진 보건관리자가 가장 많다.

### 자격별 보건관리자 선임 현황

출처 : 고용노동부(2021)

	의사	간호사	산업보건 지도사	산업위생 관리기술사	산업위생 관리기사	산업위생 산업관리기사	환경관리 (대기)기술사	환경관리 (대기)기사	환경관리(대기) 산업기사	산업보건 위생 관련학과 졸업자
제조업 등	114	5,351	1	7	914	190	0	821	232	103
건설업	1	426	0	0	893	196	0	115	17	85

## 보건관리자 주요업무



위험성평가, 개인 보호구, 보건교육  
순회점검에 대한 지도·조언 및 보좌

산재 발생 원인 조사·분석,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  
산재 통계 유지·관리·분석 등에 대한 지도·조언 및 보좌

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, 응급처치 등에 대한  
의료 행위(의사 또는 간호사에 한함)

MSDS 게시·비치, 지도·조언 및 보좌

### 보건관리자는 몇 명의 노동자를 관리할까?

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은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, 사업장의 상시근로자, 보건관리자 명수, 보건관리자의 선임 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. 제조업일 경우 통상 사업장의 노동자가 50명 이상일 때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데, 그 기준은 안전관리자 선임보다 완화된 편이다. 한편, 보건관리자는 선임 시 40시간의 법정 직무교육을 받는다. 선임 시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경우도 많으며, 사업장 특성에 따라 보건관리 업무 외에도 타 부서의 업무를 겸하는 경우가 많다. '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'에서는 타 업무를 겸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 탓이다. 🐦

### 사업장별 선임해야 할 보건관리자 수

구분		보건관리자 수
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	제1호~제22호 사업 (광업, 섬유제품염색, 모피제품제조업 등)	50명 이상 500명 미만
		500명 이상 2,000명 미만
	제2호~제22호까지의 사업을 제외한 제조업	2,000명 이상
		50명 이상 1,000명 미만
		1,000명 이상
	제24호~제43호까지의 사업(농업·임업 및 어업,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등)	50명 이상 5,000명 미만 ※ 제35호 사진처리업의 경우 100명 이상 5,000명 미만
공사금액		5,000명 이상
	제44호 사업(건설업)	800억 원 이상